

▲네파 '노부스 구스다운'



▲K2 남녀 경량재킷

아직도 헤비 다운 입니? 경량재킷의 반격

가볍고 따뜻한 기능성에 옷 맵시 살려 인기
전지현의 '노부스 구스다운' 허리라인 강조
'로잔느 경량패딩' 슬림라인에 발열소재 활용



▲로잔느 경량 패딩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스타티움 점퍼'

아웃도어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추운 것은 추운 것이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일상을 강타하고 있다.

그래서 겨울은 다운재킷의 계절이다. 보온재로 속을 채운 다운재킷은 추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듬직한 수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운재킷은 나름 고충이 있다. 두툼한 모양새로 인해 부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멋'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헤비한 다운재킷은 딱히 즐겁지만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요즘은 경량재킷이 잘 팔린다.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고, 갖출 기능은 다 갖춘 재킷이다.

●가벼움과 멋을 한 번에 잡은 경량재킷 인기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SBS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최종회에서 심청 역의 전지현은 인간세계를 떠나 바다로 돌아가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가슴 아픈 이별을 앞둔 청이의 애잔한 눈빛이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그런데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라면 이별 장면에서 전지현이 입은 패딩룩을 놓치지 않았을 것 같다. 전지현의 날씬한 몸매를 살려주는 슬림한 패딩룩이었다. 이 제품은 네파의 '노부스 구스다운'이다.

노부스 구스다운은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다운재킷으로 허리라인을 슬림하게 보이도록 핏을 잡은 코트형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이다. 헝가리 구스다운을 사용해 보온성이 뛰어나면서도 가볍다.

부드러운 촉감의 블루폭스 퍼(털) 후드로 착용감을 높였다. 탈부착이 가능해 실용적이다. 허리와 밑단의 스트링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 허리라인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스위스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와일드로즈도 여성의 라인을 강조한 '로잔느 경량패딩'을 선보였다. 슬림한 라인과 함께 발열소재를 활용해 온열감을 증대시킨 제품이다. 캐주얼한 스타일에 넥 카라와 퀼팅선의 변형으로 포인트를 줬다.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에 입기에도 좋다. 세련된 느낌의 다크 베이지와 그레이, 화려한 느낌의 씨그린과 오렌지 등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스타티움 점퍼'는 캐주얼하면서도 멋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성들에게 어울린다. 야구점퍼 스타일로 출시돼 대학생들의 캠퍼스룩으로 인기가 높다. 은은한 컬러감과 조직감있는 소재를 사용해 캐주얼한 느낌을 살렸다. 심플한 디자인의 메탈 지퍼로 디테일을 살리고 사이드, 가슴, 소매 포켓으로 수납성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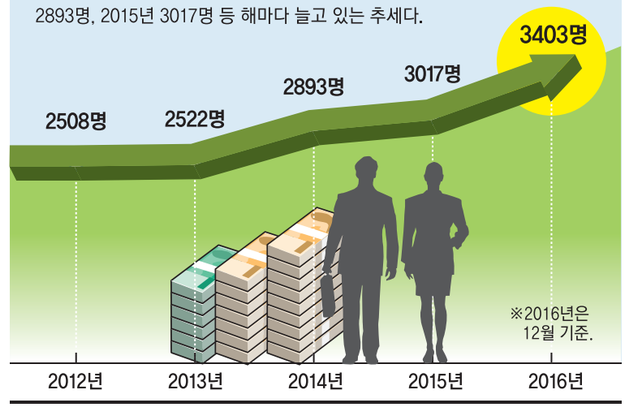
K2의 '유니온(남성용)', '유니티(여성용)' 재킷은 방수·투습 기능이 우수해 어떠한 기상 조건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톤 다운된 컬러와 고급스럽고 정제된 디자인이 돋보인다. 등산은 물론 여행 등 라이프스타일룩으로도 손색이 없다.

K2의 '브루클린'은 겉에서는 박음질이 보이지 않는 히든 퀼팅 디자인이 특징인 경량다운이다. 절개선과 박음질을 없앤 심플한 디자인으로 아웃도어 뿐만 아니라 데일리룩, 비즈니스룩으로도 연출하기 좋다. 부피감을 줄여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배낭에 넣어 다니기에도 편리하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데이터로 보는 경제 — 월급 7810만원 넘는 직장인 3400명

월급이 781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3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12월 기준 340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블랙야크, 북미시장 경쟁력 충분하다

美 최대 아웃도어 박람회 참가…차별화된 제품으로 현지 호평

글로벌 아웃도어 기업 블랙야크가 미국 진출을 본격화 한다. 블랙야크는 이달 중순 미국 최대 아웃도어 박람회인 '2017 아웃도어 리테일러 윈터마켓(OR쇼)'에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 블랙야크는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와 함께 서스테이너블 라이프웨어 브랜드 나우의 단독부스를 마련했다. 행사 기간 동안 차별화된 제품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으며 참관객,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바이어, 리테일러와의 상담을 진행하며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블랙야크 측은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2014년 인수한 나우와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OR쇼 참가를 계기로 블랙야크와 나우는 합동 직영매장 및 도매 유통망을 공유해 두 브랜드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옴니채널 등 미국 현지 유통시장의 노하우를 지닌 나우를 통해 시장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은 "유럽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경험과 나우와의 시너지를 통해 미국시장에서도 블랙야크의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SK텔레콤, 나만의 자동응답서비스 'T ARS' 출시



SK텔레콤 'T ARS'

SK텔레콤은 나만의 자동응답서비스(ARS)를 만들어 걸려오는 전화에 자동 응대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 'T ARS'를 출시했다. T ARS는 개인화된 전화 응대가 가능하다. 이용고객은 ARS의 인사말부터 내용까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또 주소록 및 캘린더와 연동해 ARS를 재생할 대상과 일정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인사말은 기존에 등록된 양식을 활용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음원을 등록하거나 직접 녹음할 수도 있다. 내용도 '음성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 '전화요청 남기기', '음성메시지 남기기' 등 4가지 메뉴를 활용해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다. 집배원의 경우 "지금 배달 중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들으시려면 1번, 우체국 방문 수령 시간 문자메시지 안내는 2번"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든 ARS는 특정 대상에만 재생되도록 할 수 있다. 주소록의 연락처 정보를 불러와 그룹 또는 개별 연락처를 ARS 재생 대상으로 지정하면 된다. 재생 일정도 설정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월1650원.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SK텔레콤 고객에 한해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iOS는 3월 이후 지원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LG G6·삼성 갤럭시S8…'AI 프리미엄 스마트폰' 반전카드 될까

안전 강화하고 인공지능 탑재한 차세대 제품
LG 2월26일 바르셀로나에서 G6 공개 예정
삼성도 3월말 뉴욕에서 갤럭시S8 언팩 행사

IT

2017년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이 드디어 포문을 연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차세대 전략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양사는 스마트폰 사업부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신제품의 시장성패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은 '갤럭시노트7'의 발화 및 조기 단종 탓에 추락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G6'는 지속된 스마트폰 사업부문 적자를 메워야 하는 LG전자의 반전카드다. 두 회사는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공지능(AI) 탑재 등 새로운 특·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선공에 나서는 것은 LG전자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월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G6 공개행사를 연다. 글로벌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 개막 하루 전이다.

이 제품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최근 LG전자의 실적



부진과 맞닿아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판매부진으로 6년 만에 영업적자를 냈다. 영업손실 규모는 352억원. 같은 기간 매출은 2015년 4분기보다 1.5% 증가한 14조7777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부진은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사업본부의 전략 제품의 판매 부진과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것이다. MC사업본부는 7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지난해 4분기 매출 2조9036억원, 영업손실 46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15년 4분기 대비 20.9% 감소했으며, 영업 적자폭은 지난해 3분기 4364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LG전자는 G6에 차별화를 내세워 반전을 노린다. 먼저 히트파이프를 적용해 발열을 낮추고, 국제 기준보다 높은 다양한 품질 테스트를 도입해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화면의 세로와 가로 비율은 18:9이며 고해상도(1440X2880)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1인치당 화소수(PPI)가 564개에 이른다. 그 밖에 원격 AS에 순차적으로 AI를 도입하는 등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3월말 경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S8 시리즈 언팩 행사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는 4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이 제품은 전 세계 스마트폰 1위 기업 삼성전자에 새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력제품인 갤럭시노트7이 조기 단종되는 아픔을 맛봤다. 특히 잇따른 발화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며 브랜드 인지도가 추락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이 배터리 결함 때문이란 조사결과를 내놨다. 또 향후 기획 단계부터 출고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프로세스를 갖추기로 했다. 특수 장비 도입과 완제품에 대한 대량 충·방전 테스트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갤럭시S8은 이 같은 장치를 도입한 첫 제품으로, 향후 삼성전자 제품의 안정성 척도가 될 전망이다.

갤럭시S 시리즈를 MWC에서 공개하지 않고 별도 행사로 예년보다 조금 미룬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제품에 대한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물리적 홈버튼이 없어지고 '빅스비'란 AI 음성비서 기능이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의

KT 5G 시범 서비스 5개, 국제표준 초안으로 채택

KT는 16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의에서 360도 가상현실(VR) 생중계를 비롯한 5G 시범 서비스 5개가 국제표준 초안으로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KT는 싱크뷰, 360도 라이브 VR, 옴니뷰 등 평창 올림픽을 위해 개발해 온 5G 서비스들의 시나리오 및 기술요구사항을 국제표준 기고서로 제안했다. 이후 10일간의 토론을 거쳐 ITU에서 표준 문서 초안으로 선정됐다. 이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에 대한 표준안이 승인된 건이다. 한편 표준제안 문서 채택을 위해 일본 NTT도 동경 2020 하계 올림픽을 위한 5G 서비스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KT 표준과의 경쟁이 있었다. 하지만 KT가 양사의 제안 내용을 취합 후 에디터로서 하나의 표준 문서를 주관해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